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6. 2. 9.(월) 12:00
(지 면) 2026. 2. 10.(화) 조간

우리 동네 유희 공간, 지역문제 해결하는 ‘혁신 거점’으로 태어난다

- 2월 9일부터 ‘2026년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 사업’ 공모
- 비수도권 기초지방정부 대상 2개소 선정… 개소당 8억원 지원
- 현장기반 정책실험과 다부처 연계로 기능 고도화… 지역 문제해결역량 강화

-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다양한 주체들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「2026년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 사업」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공모는 2월 9일(월)부터 3월 6일(금)까지 진행된다.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개소를 선정하며, 개소당 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.
- 이번 사업은 신규 공간 조성보다는 기존에 진행했던 각종 사업 등을 통해 이미 조성된 공간을 협력과 혁신의 거점으로 되살리는 데 집중한다.
- 그동안 활용도가 낮았던 공간을 주민, 민간단체, 대학 등이 함께 모여 직접 지역 의제를 설정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공간으로 바꾼다. 이를 통해 이웃과 연대하며 지역 경제를 살리는 생태계를 널리 퍼뜨리는 것이 목표다.
- 거점 공간은 주민과 전문가, 지방정부가 함께 정책수요를 발굴하고, 소규모 실증을 거쳐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는 정책실험실(정책랩) 기능을 수행한다.

- 아울러, 그동안 부처별로 따로따로 추진되어 연결고리가 부족했던 사업들을 주민 생활권 중심으로 연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돕는다.
-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다지고, 사회연대경제가 지역 문제 해결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.
- 공모 접수 후 서면심사와 현장실사, 대면심사를 거쳐 4월 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.
- 선정된 지방정부에는 정책실험실(정책랩) 운영, 다부처 사업 연계·기획, 사례 연구 등 사업 전 과정을 지원한다.
- 사업 공고문 등 세부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(www.mois.go.kr)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- 박연병 자치혁신실장직무대리는 “지역이 직면한 문제는 이제 행정기관이나 특정 주체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단계에 와 있다”라며,
- “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거점공간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문제해결역량과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자치혁신실 사회연대경제지원과	책임자	과 장	염성욱 (044-205-3211)
		담당자	사무관	김윤희 (044-205-3218)